◈ 會員社 動靜 ◈

LG産電(株), 인도네시아에 重電機器 합작공장 건설

LG産電(株)(代表:李鍾秀)는 인도네시아 현지기업과 합작으로 총 1,200만 달러를 투자, 자카르타 인근 BEKASI공단에 배전반·모터제어반(MCC)·斷電器제어반(Relay Control Panel)등을 생산하는 중전기 합작공장을 건설한다.

합작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LG산전은 인도네시아 굴지의 기업으로 대통령 3男이 경영하는 Humpuss 그룹의 자회사인 PT. Humpuss Elektronika와 50대 50으로 「PT. Humpuss LG Industrial Systems」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합의하고 현지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으로 LG산전은 국내 중전기 업체로는 처음으로 해외 현지 생산공장을 보유하게 됐으며, 연평균 8%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동남아시장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또 이번 합작공장 건설은 국내 중전기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 착공하여 97년 초부터 LG산전의 기술제공하에 본격 가동할 합작공장은 대지 1만평, 건평 3천평 규모로 건설되는데 공장 가동 초기에는 년 2,500面 정도의 배전반을 생산하게 되며, 점차 생산제품과 규모를 늘려 2천년에는 년 6,000面의 배전반, 모터제어반, 계전기 제어반 등을 생산하고 점차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관련 중전기기인 진공차단기(VCB), 몰드변압기, 고·저압기기 및 자판기·쇼케이스, 전동공구 등 타제품도 병행 생산하는 복합 해외생산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생산제품은 우선 인도네시아 전력청(PLN) 및 내수시장을 위주로 공급하게 된는데 현지법인의 사업이 안정화되는 대로 중국·말레이지아·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국가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생산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는 2천년에는 아시아 전 지역과 유럽에 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인도네시아는 향후 중전기 분양의 해외진출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된다.

오는 2천년 4억불 규모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시장은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전력화사업 추진으로 연평균 13% 이상의 높은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지법인만 내수시장에 참여 하도록 하는 제약요인이 있어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Merin Gerin(佛), SIEMENS(獨), AEG(獨), ABB(스웨덴) 등 세계적인 중전기업체들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LG산전도 이번 현지법인 설립으로 인도네시아 전력청의 국제입찰은 물론 국내입찰과 民·시장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해졌고, 현지 직접 생산·판매를 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이 법인설립 이전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법인은 배전반을 주력제품으로 삼아 인도네시아 전력청에서 발주하는 24kV급 고압폐쇄배전반(MCSG)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초기 시장전략을 세워 놓고 있는데, 오는 2천년까지 현지법인 매출 6천만 달러와 시장점유율 15%를 달성하여 인도네시아 배전반시장에서 프랑스의 Merin Gerin에 이어 제2의 배전반 업체로 부상할 목표를 세워 놓았다.

현지법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LG산전은 현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 기술연수를 실시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자체개발한 기술의 조기이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LG산전은 이번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으로 8개 해외법인과 5개 해외지사 등 총 13개의 해외사업장을 보유하게 됐고, 2천년 비전인 30여개의 해외사업장을 연결한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과 해외매출 비중 40%라는 목표에 한걸음 가까이 가게 됐다.

新亞電氣工業(株), 첨단 누전차단기 개발

新亞電氣工業(株)(代表:趙俊英)는 누전탐지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누전탐지기라고 명명된 이 제품은 옥내배선탐지 기능을 겸비하고 있으며, 송신기와 수신기로 구분, 송신기에서 탐색 대상선로로 펄스를 발신시키면 수신기에 부착된 탐지개소별 신호등에 의해 누전이 되지 않을 시에는 신호등이 점등되고 누전이 될시에는 점등되지 않아 자세한 누전개소까지 단번에 알 수 있어 누전개소를 찾기위해 벽이나 천정을 다 허물던 종래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같은 의미에서 누전탐지기는 전기공사나 전기안전보안점검 등에 있어 누전탐지의 정확도를 크게 높이고 누전검색시간과 보수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가히 혁신적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사의 누전탐지기는 이밖에도 ▲사선상태에서 옥내매입 선로를 탐지할 수 있고 ▲매입회로의 배선도통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 ▲탐지상태가 부저와 LED로 확실히 표시된다.

新亞電氣工業은 일본과 기술제휴로 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향후 국산화율을 더욱 높여 핵심IC만 제외한 모든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계획이다.

LG電線(株), 구미에 광케이블 일괄 생산 구축

LG電線(株)(代表:權炆久)는 구미공단내 인동공장에 국내 최대규모 광통신케이블 일관생산라인을 구축, 98년 9월부터 광통신케이블을 연간 1백만km 생산할 계획이다.

LG전선은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계획 추진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 현재 안양공장과 구미공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광통신케이블 생산라인을 인동공장으로 일원화하면서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선은 올해말까지 안양공장 광섬유생산라인, 구미공장 케이블링(피복)라인을 인동공장으로 이전해 연간 60만km 생산능력을 갖춘 뒤 98년 9월말까지 증설을 실시, 연산 1백만km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G전선은 인동공장 광통신케이블 생산라인설치와 병행해 전산체계를 구축, 본사 및 일선 영업부서에서도 공장가동 실적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적기납품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成原電氣工業(株), ISO 9002 인증 획득

成原電氣工業(株)(代表:李暻浩)는 한국품질인증센터로 부터 ISO 9002 인증을 획득, 제 2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74년 삼성전기공업사로 출발하여 79년 성원전기공업(주)로 상호변경과 함께 국내최초로 전기절연물을 KS를 취득하는 등 남다른 품질 경영을 해온 봐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동사가 이번에 획득한 인증범위는 (마이카테이프류, 마이카 판류, 절연적층판, 전기절연용테이프, 복합전기절연물, 수지코팅전기절연물, 전기절연용접착테이프류, 전연튜브의 생산 및 판매)로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배양과 함께 제품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신뢰받는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고 경영자로 부터 일선 생산라인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인 품질경영의 노력으로 이번 ISO 인증을 획득하여 외국선진국 제품과 경쟁력을 갖춰 수입 억제와 함께 수출증대에도 큰 이바지를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배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韓寶工業(株), 용융아연도금 기술硏 설립

용융아연도금업체인 韓寶工業(株)(代表:金明帝)는 2억원을 투자, 용융아연도금전문기술연구소를 설립, 최근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이 연구소는 연구원 11명, 박사급기술고문 3명등 모두 14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금두께시험기와 염수부문시험기등 14종의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보는 올해중 3억3천만원을 투자, 추가로 7명의 고급인력을 영입하고 조직현미경과 만능재료시험기등 연구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 연구소는 기존 용융아연도금의 부식방지능력을 배가시키고 컬러용융아연도금을 개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金사장은 『국내에는 용융아연도금에 관한 전문가가 거의 없어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며 『철의 부식에 탁월한 부식방지효과를 내는 용융아연도금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동사는 연간 10만t을 용융아연도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내 최대 용융아연도금업체이다.